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암살시도 [느헤미야 6]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3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 가겠느냐 하며 4 저희가 네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5 산발랏이 다섯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찌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0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5 성 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16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17 그 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18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한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19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적군을 대항할 최고의 전술 중 하나는 그들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오늘 설교본문 6장에서 사탄이 시작한 전술입니다. 사탄은 만약 느헤미야를 무너뜨린다면 교회의 재건사역은 심각하게 지장을 받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지도자를 쫓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사역을 이끌거나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은 사탄의 주요 관심대상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탄이 느헤미야를 공격목표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들은 오래된 적들로부터 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의 적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대화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모임에 느헤미야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대화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나아가 대화하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지 세상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들은 역시 공개서신을 통해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5 산발랏이 다섯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

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느헤미야 6:5).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하며 반란을 일으키려한다는 거짓 정보가 적혀있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 인들이 이 편지를 읽었다면 느헤미야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힘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9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6:9). 그는 이런 공격들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힘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2,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들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또한 그의 도시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왔습니다. (느헤미야 6:10-14).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도비야와 산발랏으로부터 고용된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피신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는 느헤미야를 돕는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불신을 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도망간다면, 그는 겁쟁이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희생될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남아 싸우는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 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분은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대담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분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을 다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도자이십니까? 또한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도망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전출입은 오직 제사장들로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사나 교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권위가 됩니다.

3,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들은 지속적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교회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역들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항하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공격을 계속되었습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기위해 편지들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지속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분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친히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실 것이란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속하는 이유입니다.